



초등생 극단적 선택 시도했는데 공식 기록 ‘전무’

학교, 사건 발생 후 매뉴얼상 사안보고서 등 미제출
학교폭력 뒤늦게 드러나며 ‘사건 은폐 의혹’ 부상
교육지원청 “유선 보고·후속 조치는 이뤄져” 해명

제주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극단적 선택 시도 사건과 관련해 교육 당국의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사건 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11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11월 28일이었다. 도내 한 초등학교 6학년 A양의 엄마 B씨는 담임 교사의 연락을 받고 A가 학교 건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담임 교사에게 전해 들은 이유는 ‘엄마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친구들이 너무 괴롭혀서 힘들다’는 거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B씨는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고 했다.

유아무야월 뻔했던 사건이 다시 꺼내진 것은 올해 4월이었다. A와

같은 학급 학생 일부가 A를 괴롭혀 온 것이 드러나면서다. 한 학부모가 자녀의 단체 대화방에서 A에 대한 ‘사이버불링’ (온라인에서 특정 개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배제하는 행위)을 발견해 이를 학교에 신고했다. 가해 학생들은 A가 중국 국적의 이주배경학생이라는 점 등을 들어 괴롭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제서야 B씨도 A에 대한 학교폭력이 오랜 기간 이어진 것을 알아차렸다. 극단적 선택 시도 사건이 발생했던 날에 친구들로부터 ‘억겁다’ 등의 말을 들은 것도 뒤늦게 알게 됐다. 이후 B씨는 지난 6월 열린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당시 사건까지 다뤄지길 바랐지만, 이를 증명할 자료는 어디에도 없었다.

B씨는 같은 달,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에 A의 극단적 선택 시도 사건에 대한 기관 보고와 신고, 조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정보 부존재’였다.

도교육청의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학생 극단적 선택 시도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학교 측은 교내 위기관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해야 한다. 1차로 도교육청에 유선으로 사안을 보고하고 관련 서식에 따라 사안 접수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사안 인지 후 10일 이내에는 2차로 ‘학생자살(시도)사안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교육 당국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시민단체인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스스로 인정한 것은 단 하나 ‘관련 서류 일체 부존재’”라며 “한 학생의 생명이 꺼지기 직전

까지 갔던 사건에 공식 기록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됐음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공식 기록이 없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은폐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면서 해당 사안에 대한 유선 보고와 후속 조치는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놓쳤다면 우리 (교육지원청)라도 ‘제출하라’고 했어야 하는데, 경황이 없다 보니 서로가 놓친 게 있는 것 같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리 조치가 미흡한 데다 극단적 선택 시도 사건을 목격한 학생들에 대한 심리상담이 없었다는 점에서 그간 조치의 적절성 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B씨는 “제일 바라는 건 아이들의 안전”이라며 학교와 교육청 등의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쿠팡 외부 폐기물 수거장서 불… 인명피해 없어

쿠팡 물류센터 외부 폐기물 수거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

11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8분쯤 제주시 애월읍의 쿠팡 물류센터 외부 폐기물 분리수거장에서 불이 났다는 배달기사의 신고가 접수됐다.

불은 오전 4시 45분쯤 완전히 꺼졌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폐기물 수거장 등이 소실되면서 소방서 추산 49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한경면서 승용차-SUV 충돌… 7명 다쳐

제주에서 차량 두 대가 충돌해 7명이 다쳤다.

11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18분쯤 제주시 한경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와 SUV 차량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A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승용차 운전자 20대 남성 B씨 등 2명과 SUV에 타고 있던 운전자 50대 남성 C씨 등 4명도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소정기자

여름 휴가철 숙박시설 불시 화재안전조사

야간시간대 예고없이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는 도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야간에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름 휴가철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도내 숙박시설의 화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진다.

이달 12일 진행되는 조사는 숙박시설 이용객이 머무르는 야간 취약 시간대에 사전 예고 없이 도내 모든 소방관서가 일제히 실시하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과 초기 대응이 이뤄질 수 있는지를 중점 확인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여부,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소방시설의 고장·임의정지 상태 방지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건, 과태료 부과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박진수 소방안전본부장은 “숙박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야간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타인 소유 감귤밭 방풍림

무단 절단·훼손 50대 입건

타인 소유의 감귤밭에 있는 방풍림을 무단으로 절단하고 훼손한 50대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의 한 감귤밭에 있는 삼나무 등 방풍림을 무단으로 절단하고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훼손된 방풍림이 위치한 감귤밭 인근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A씨는 삼나무 가루날림과 조망권 침해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나무 절단을 요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감귤밭 소유자 측은 이 요구를 거절했음에도 A씨가 무단으로 나무를 절단 및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밀동까지 잘려나간 나무가 16그루, 훼손이 심해 고사하게 된 나



송악산 관광객들 11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탐방에 나서고 있다.

강희만기자

무가 13그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A씨가 무단으로 30그루의 나무를 가지치기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이중 일부 나무의 절단 및 훼손만 인정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주장하는 측은 “방풍림이 훼손되면서 올해 농사가 어렵게 됐다”며 “훼손된 기존 나무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고, 바람막을

설치하는 데에만 1000만원 가까이 돈이 들어가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한편 경찰은 정확한 나무 훼손 규모와 시기 등을 파악해 A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양유리기자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굴고리 작업세트 구성



굴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굴고리’가 있습니다!**

굴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능
2.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